

# 목포교육지원청, 다같이 돌자! '목포 한바퀴' 제작 지원

### 목포의 역사문화 바로알기·건전한 놀이문화 등 기여

### 놀이 통한 창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창의력·수리력 향상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갑수)이 목포의 청소년문화센터(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 목포시정소년문화센터)와 지역사회 방과후학교·돌봄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개발·보급하는 '목포 한바퀴' 보드게임을 제작 지원하여 목포의 문화(역사) 바로알기와 건전한 놀이문화 및 여가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에 3월 11일,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에서 런칭 기념 제작 발표회 이후에 목포 관내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목포교육지원청은 목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학생들이, 놀이를 통한 창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창의력·수리력 향상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목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콘텐츠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목포 한바퀴'는 목포의 문화자원과 관광지, 유적지와 더불어 청소년 기관과 교육기관을 소개한 방과후활동 교구로써, 목포 지역 청소년들이 제작에 직접 참여하여 더욱 그 의미가 깊다.

목포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최은순)은 "지역사회 방과후·돌봄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목포를 대표할 수 있는 방과후활동 교구가 생겨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연계·협력 체계 구축으로 학생들의 학교 밖 돌봄 및 방과후 놀이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 연계 기관과의 MOU체결과 우수 프로그램 강사 지원 등, 지역특성에 맞춘 바람직한 학생 여가 문화 정립으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목포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포=박정수기자

## 광주 화정남초, '나나 프로젝트-컬러링북 만들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일환...컬러링북 나눔 통한 코로나19 극복



화정남초가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나나 프로젝트(나는 작가! 나누는 기쁨!)-컬러링북 만들기'를 성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나 프로젝트-컬러링북 만들기'는 학생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소외된 이웃들 모두가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하고 행복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화정남초 전체 학생과 교직원들은 직접 작가가 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했고, 총 52개 작품으로 구성된 컬러링북을 제작했다. 화정남초는 학생과 교직원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컬러링북을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인근 복지관 및 노인정에 전달했다. 또 수업 시작 전, 점심시간 등 자투리 시간에 컬러링북이 활용돼 학생들의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강화, 창의력 향상, 심신안정 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최은희기자

## 보성공공도서관, 봄학기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보성교육지원청 보성공공도서관은 학생 및 지역민들을 위한 봄학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12개 과정을 30일부터 개강하여 운영한다.

학생 대상으로는 창의력 및 문화예술 감수성 향상을 위해 ▲창의미술교실 ▲오물조물책 놀이터 ▲주산암산교실 ▲EQ바둑교실을, 지역민들에게는 직업능력향상, 문화예술,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그림책교육지도사 3급 ▲정리수납전문가 2급 ▲서양화 초·중급 ▲프랑스 지수 소품만들기를 운영한다.

이번 학기에는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여 프로그램 특성에 맞춰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혼합 운영된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평생학습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한 점심시간 활용 프로그램으로 ▲오피스 요가 및 힐링 명상 ▲SNS따라잡기(기초부터 활용까지)

를 ZOOM과 같은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지역민들의 직업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으로 그림책교육지도사 3급과 정리수납전문가 2급 과정이 개설된다.

그림책교육지도사 3급 과정으로 아이들의 독서 지도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야간 비대면 강좌로 정리수납 전문가 2급 과정으로 직장인들도 자격 취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 그와 별도로 특정 강좌의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이다.

보성=김덕순기자

## 전남교육청, 학교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도입

### 민원응대 고충으로부터 교직원 보호 위한 조치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민원상담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민원인의 욕설·폭언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도입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학교에 비대면 민원상담 전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민원상담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민원인의 욕설·폭언 등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졌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욕언 등 특이민

원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자동응답 시스템(ARS), 통화연결음 서비스, 전화민원 응대 요령'을 안내해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이란 민원인이 각 학교에서 설정한 ARS를 청취한 후, 착신 번호를 누르면 지정된 실로 연결되는 서비스로 학교 실정에 맞게 약정기간, 조건, 서비스 종류 등을 선택하면 된다.

또 통화연결음 서비스는 전화 연결 전 욕설·폭언 등에 대한 녹취 안내, 민원인의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는 서비스로 각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통화 연결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공했다.

매월 요금은 학교별 부가서비스 선택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은 학교 기본운영비로 충당된다.

그 결과, 일선 학교 자동응답시스템(ARS)과 통화연결음 가입률이 높아졌고 부가서비스를 도입한 학교 교직원의 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진 총무과장은 "새 학기를 맞아 교직원들이 행복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특이민원 예방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 무안교육청, '공감마당' 학교폭력 사안처리로 업무부담 줄어

### 학교폭력예방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란) 학교지원센터는 3월 개학에 맞춰 새롭게 업무를 맡게 된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업무 이해와 처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비대면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날 연수에서, 초빙강사인 전남예술고 황일환 교사는 도교육청이 3월부터 도입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지원시스템 '공감마당'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사용설명서를 안내했으며, 시스템의 학교폭력 사안접수, 전달기구, 심의요청, 심의결과, 이행완료 메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진행했다.

이어서 무안경찰서 학교전담경찰 허부 경찰관은 학교폭력 발생 시 주의사항과 더불어 그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

이 많은 부분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하였다.

연수를 마치고 담당교사들은 학교별 사안처리 과정에서 궁금하거나 어려웠던 점에 대해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시스템 메뉴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할 수 있게 되어 담당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란교육장은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학교에서 기회하는 학교폭력 업무를 맡아 주신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